유네스코투어

2022년 10월 11일 화요일 / 9:00-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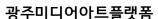
코스: 김대중컨벤션센터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 > 김대중컨벤션센터 *버스 이동 / 식사 불포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사업은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 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해 1995년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으며, 2015년 이 기록관이 개관하였습니다.

본 기록관은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가 겪은 이야기를 수집·연구·전시하고 있습니다. 1~3층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자료와 기록물들을 전시해 놓은 상설전시관으로 생생한 현장 분위기를 느낄수 있습니다. 그리고 4층은 도서 열람실, 5층에는 각종 기록물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기록관이 위치한 건물은 당시 카톨릭센터로, 6층을 방문하면 당시 광주 교구장이었던 윤공희 신부의 집무실이 그대로 재현되어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바로가기)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문학, 음악, 민속공예, 디자인, 영화, 미디어, 음식 등 7개 분야에서 문화· 창의성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문화융성에 기여하는 도시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창의도시들의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광주광역시는 2014년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 선정되었으며, 2022년 3월, 미디어아트 분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이 개관하였습니다.

세계인권도시포럼 기간 중 1층에 전시되는 '박상화-소요풍정'은 사람과 자연과의 조우를 통한 궁극의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3층에 전시된 '디지털 공명'은 예술을 통해 과거, 현재, 미래가 마주하고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고찰하면서 정보 데이터에 기반하는 디지털 예술의 다양한 실험과 방향을 보여줍니다.



